

구분	상 격	납품자	작품명	점수
11	대상	박소진, 정현진	나의 향해일지	1976
22	최우수상	윤정호, 김새미	청년, 청춘을 만나다	1883
5	최우수상	문규열	시로 그리는 우리네 세상	1880
7	우수상	홍명호, 권영원	가족의 시작	1874
1	우수상	임일권	여든여섯	1869
12	우수상	문준영	칠십 여섯 늦게 만난 취미	1813
72	우수상	원명스님	못다핀 꽃한송이	1769
10	우수상	김형구	낭만이 체질, 배움으로 가득한 황혼	1767
58	우수상	김복남	형석고 라온 동아리	1764
114	인기상	양승찬	너와 나,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	1750
26	인기상	이대행	세대격차줄이기	1719
126	인기상	임정자	애들아 엄마가 미안해.	1675
119	인기상	김은순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1671
60	인기상	이강식	한 때엔 날렸던 나의 옛날이여	1659
15	인기상	김지영, 김정식	인생내컷	1655
25	인기상	김신애	봉사	1634
104	인기상	이재원	멋쟁이훈장님	1622
37	인기상	최영은	우리는 대화가 통한다	1606
61	인기상	한인숙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어요	1605
129	인기상	이명현	소중한 인연	1601
40	장려상	노재원	내가만나는사람들	1394
13	장려상	김영선	인생교향곡 7악장 4악장 음악이라는 행복	1394
86	장려상	조성수	맨몸으로 일어난 사나이!!!	1393
34	장려상	박희숙	문을 열고 나오다	1385
132	장려상	김옥분	내 인생 첫 도전	1384
128	장려상	차옥희	나의 꿈은 여행작가	1384
71	장려상	이영은	나도 인생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1384
33	장려상	김준기	함께 나누는 행복	1384
18	장려상	김동연	나 행복은 도전하고 배우는거야	1384
42	장려상	이수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돌봄활동	1382
19	장려상	류홍천	인생 2막 앞에서	1382
130	장려상	박영주	노력하며 사는 삶	1381
127	장려상	김병순	아쉬웠던 유년시절	1381
101	장려상	성종영	괴산 은행나무길에서	1381
121	장려상	하은수	멋진 언니들	1378
24	장려상	윤규선	내 인생의 희로애락	1378
62	장려상	오점례	오점례여사님과 우당탕탕 김장스토리	1377
97	장려상	노순예	나의 딸은 올림픽선수'우생순'주인공 - 김명화 선수	1376

78	장려상	윤상길	나의 바람	1375
88	장려상	박선자	아들이 뭐지..	1374
87	장려상	남순자	옛날 비디오	1374
133	장려상	권순복	다시 가고 싶은 여행	1372
134	장려상	강정해	봉사하는 의상 디자이너	1370
45	장려상	김원갑	나의 살아온 인생	1370
41	장려상	백미영	나와 가족의 계절	1369
79	장려상	권오철	굴국	1368
64	장려상	김신자	죽리마을 부녀회장입니다	1367
4	장려상	조춘화	열심히 살아서 고마운 나	1367
32	장려상	한문희	정직과 감사로 가득한 인생	1363
82	장려상	김기영	나는 99세 입니다	1362
135	공감상	이덕희	어릴 적 나의 꿈은 가수	1361
123	공감상	김옥분	가족이 다 잘 되어서 너무 좋아요	1361
73	공감상	박춘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1361
31	공감상	정규흠	70, 다시 청년이 되다	1361
131	공감상	노기분	다시 태어난 나	1359
59	공감상	최병란	민들레 훌씨처럼 날아가고.	1359
103	공감상	신봉수	운천로그 여행	1358
49	공감상	박병기	연애인	1358
138	공감상	고춘자	봉사는 언제나 행복해	1357
28	공감상	이상옥	살아온 이야기	1357
136	공감상	한희자	여장부 농사꾼	1356
96	공감상	장금순	작은 엄마의 눈물	1356
69	공감상	신성남	88세 나는 화가다	1356
30	공감상	피세분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나'	1356
91	공감상	권갑분	시부모의 사랑은 눈물을 부르고...	1355
17	공감상	장양원	77년 인생열차	1355
77	공감상	이복남	출세 한 거 같아요	1354
56	공감상	임정순	힘겹게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1354
94	공감상	김숙자	그냥그냥 살아유	1353
65	공감상	이순란	72세 파워 블로거가 되고 싶습니다	1353
108	공감상	김미정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1351
90	공감상	송동섭	나의 귀촌이야기	1351
68	공감상	정상환	정미소 사장입니다	1351
50	공감상	박미자	일편단심	1351
48	공감상	김홍열	해병 김홍렬	1351
124	공감상	조호자	시어머니가 해주신 호박잎	1350
105	공감상	오정혜	제천 의림지 풍	1349
70	공감상	김은숙	봉사는 나의 행복	1349
143	공감상	손수화	글 배우는 사람	1347
142	공감상	송병우	고생한 기억만 떠올라	1347

137	공감상	안순녀	힘든 날 다시 일으켜 준 학교	1347
95	공감상	노병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347
63	공감상	정옥순	그 세월을 어찌다 말로하...	1347
52	공감상	최미자	깍쟁이	1347
46	공감상	권정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347
14	공감상	김요순	봉사로 꽃피울 나의 인생 2막	1347
111	공감상	김순복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1345
106	공감상	이병우	증평인삼골축제의 현장	1345
85	공감상	신임순	늦각이 학생의 즐거움	1345
53	공감상	서기남	김치국과 어린시절 할머니의 큰 사랑	1345
35	공감상	배은영	가족세대공감	1345
141	공감상	김종예	짹 하고 해 뜬 날	1344
125	공감상	한선희	여행이라도 맘 놓고 했으면	1344
120	공감상	이명수	마누라! 아프지마오	1344
109	공감상	민국자	우리 가족들에게	1344
6	공감상	김형식	할미의 웃을 입은 성자	1344
140	공감상	장정애	즐거운 내 인생	1343
16	공감상	한병임	구들장처럼 따뜻한 '어머니'	1343
92	공감상	이경희	평생을 고향에서	1342
110	공감상	육정임	배움에는 끝이 없다	1341